

# '10년의 준비서기, 100년의 도약'

태권도진흥재단, 태권도원 개원 10주년 기념식 29일 개최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직무대행 이종갑)은 태권도원 개원 10주년을 맞아 오는 29일 태권도원 T1 경기장에서 기념식을 개최한다.

"10년의 준비서기, 100년의 도약"을 슬로건으로 한 태권도원 10주년 기념식은 29일 11시 태권도 시범공연으로 시작하여 기념사와 축사, 유공자 표창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개원 10주년을 맞아 특별한 LED 퍼포먼스를 진행하는 등 태권도원 개원 및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단체, 국내외 원로사범 등이 함께하는 행사로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 2014년에 개원한 태권도원은 231만 4천㎡ 면적으로 태권도 전용 경기장인 T1 경기장을 비롯해 국립태권도박물관과 태권전·명인관이 있는 상징지구, 전통무예수련장, 체험관 YAP, 플레이인, 전망대 등 태권도 성지이자 한국관광100선에 빛나는 국민 여행지로 성장해 왔다.

특히, 2014년 16만 명 방문을 시작으로 2023

년에는 31만 6천여 명이 찾는 등 10년간 250만여 명이 다녀갔고, 태권도원을 타지로 한 외국인 방문객은 연평균(외국인 방문 연평균: 코로나19 팬데믹 기간(2020~2022) 제외) 1만 7천 명을 넘어서는 등 스포츠 관광 활성화와 태권도 문화를 확산하는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이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다.

태권도진흥재단 이종갑 이사장 직무대행은 "태권도원 개원 10주년 의미를 국내외 태권도인들, 국민들과 함께 나누고자 한다"며 "기념식 슬로건과 같이 10년의 준비서기를 바탕으로 다가올 100년의 도약을 위해 태권도원 운영을 비롯해 태권도 진흥·보급·보존 등 태권도진흥재단의 맡은 바 임무 완수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10주년 기념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태권도진흥재단은 태권도원 10주년 기념식이 있는 4월 한 달간 태권도원 입장료를 무료로 하는 등 많은 방문객들이 태권도원을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운영할 계획



태권도원 10주년 기념식 포스터

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 'KBS 국악한마당' 정읍서 열린다

동학농민혁명 130주년 기념 20일 정읍시예술회관에서 개최

정읍시는 동학농민혁명 130주년을 기념해 오는 20일 오후 4시 정읍시예술회관에서 'KBS 국악한마당' 공연을 개최한다. KBS 국악한마당은 1990년 첫 방송 이후 국악인들에게 최고의 무대로 손꼽히는 자리로, 국악의 전통성을 계승하며 시대의 흐름을 담아내고 있는 국내 최정수 국악 전문 프로그램이다.

이날 공연에는 박애리, 남상일, 두번째달, 오단애, 최예림, 권빛나 등 대한민국 최정상 국악인들과, 탄탄한 실력의 정읍시립국악단이 무대에 올라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공연은 8세 이상부터 입장할 수 있으며 티켓은 전석 무료다. 예매는 오는 11일부터 17일까지 티켓링크를 통해 하면 된다. 예매권은 공연 당일 현장에서 1시간 전부터 수령하면 된다.

이화수 시장은 "전통문화의 대표 프로그램인 'KBS 국악한마당'을 통해 동학농민혁명 130주년을 맞아 정읍을 대내·외에 홍보하고, 동학농민혁명 130주년을 시민들과 함께 기억하고 기념하는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 드리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선양사업을 통해 혁명 도시 정읍의 위상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연은 4월 20일 공개 녹화로 진행되고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인 5월 11일 낮 12시 10분에 KBS 1TV를 통해 방영된다. /정읍=김태환 기자

## "전주세계소리축제 로고로 자유롭게 표현해요"

'어린이 로고 꾸미기 대회' 참가자 모집

2024년 전주세계소리축제가 '어린이 로고 꾸미기 대회' 참가자를 모집한다.

1일 소리축제에 따르면 '어린이 로고 꾸미기 대회'는 소리축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어린이들에게 독창성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소리축제의 로고를 활용해 자유롭게 꾸미고 그림으로 표현하는 그리기 대회다. 올해는 소리축제가 8월 여름 시즌에 개최되는 만큼 공모 주제를 '여름'으로 정했다.

그리기 방법은 소리축제 로고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은 후 꾸미거나 로고 자체를 그린 후 꾸미는 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해서 그리면 된다. 재료 및 기법은 제한이 없으며, A4 사이즈에 연필, 색연필, 크레파스 등으로 그린 평면 작품 혹은 그래픽툴(그림판, 포토샵 등)을 활용한 순수 어린이 작품이라면 모두 응모 가능



하다. 로고 이미지는 소리축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접수는 오는 8~21일까지며, 네이버 폼(<https://naver.me/GMWUhbTc>)을 통해서만 가능

하다.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네이버 폼에 간단한 인적 사항과 함께 작업물의 원본 또는 캡처한 사진(10MB 이하)을 첨부하면 된다. 우편이나 이메일 및 방문 접수는 받지 않는다.

수상자는 소리한상 1명, 상상그이상 2명, 기발한상 10명, 잘그렸상 20명 총 33명을 선정하며, 이들에게는 상장과 함께 각각 15만 원, 10만 원, 5만 원, 3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이 주어진다. 소리축제 기간 축제장 방문 시에는 기념품도 증정할 예정이다. 수상작은 26일 발표된다.

자세한 사항은 소리축제 홍보팀(063-232-8394)으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2024년 전주세계소리축제는 8월 14~18일 5일간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북특별자치도 14개 시군 일원에서 펼쳐진다. /장은성 기자

## 한국전통문화전당, 12일 화전놀이 행사 진행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은 오는 12일 전주천년한지관에서 '화전놀이: 지식(紙食)의 향연 행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1일 전당에 따르면 봄맞이 한지와 한식의 만남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전주천년한지관을 찾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지 꽃 만들기, 화전놀이, 전통민속놀이 등 모두 3개의 테마로 진행된다.

세부 내용은 △진달래를 주제로 전통한지에 대해 알아보고 나만의 봄꽃을 만드는 '한지 꽃 만들기' △봄꽃을 올린 떡을 만들어 맛보며 옛

우리 풍습을 재현하는 '화전놀이' △투호던지기, 제기차기 등의 놀이를 즐기는 '전통민속놀이' 등으로 놀이왕에게는 소정의 상품이 증정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행사는 전주천년한지관과 한식창의센터 두 개 부서의 협력으로 한지(紙)와 한식(食)의 전통문화 관련 전문 지식을 전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도영 원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화전놀이라는 우리 전통문화를 이해하고, 추억과 향수를 느끼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소장작품 대구 순회전 '묵혼의 변주'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조직위원회(위원장 송하진)는 2~7일까지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묵혼(墨魂)의 변주'라는 주제로 소장작품 대구 순회전을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소장작품 순회전시는 비엔날레가 개최되지 않고 준비하는 연도에 서예비엔날레 홍보와

서예문화 진흥을 위해 2000년부터 국내 42회, 국외 10회 등 총 52회 국·내외 순회전이 기획됐다.

이번 대구 순회전은 '묵혼(墨魂)의 변주'라는 주제로 전통 서예를 기반으로 현대적 필선과 개성적인 서예 명작 총 90점의 작품이 전시

된다. 특히, 1,000명의 공동작품으로 제작돼 제14회 2023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행사 작품 중 가장 많은 호응을 받은 '한글천원천시 10곡 병풍'도 함께 전시된다.

송하진 위원장은 "대구 순회전을 시작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서예의 멋과 우수성을 경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도내는 물론, 국내외 찾아가는 전시를 통해 한국서예문화 진흥과 대중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 관광스타트업 공모전 참여기업 15~24일 모집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관광스타트업 공모전'(이하 공모전)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신청은 15~24일까지다. 1차 서류심사와 2차 발표심사를 거친 후 최종 발표는 5월 초에 이뤄진다. 특히 만 39세 이하 청년 창업자는 서류심사 시 가점 1점을 받을 수 있다.

공모전은 관광 분야의 유망한 스타트업 15개를 발굴하고 지원한다. 분야는 관광디테크, 관광인프라, 실감형관광콘텐츠, 관광체험서비스,

지역특화콘텐츠 5개이며, 이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모집 대상은 예비(3개 사), 초기(5개 사), 성장(7개 사)으로 나눠 총 15개 기업을 선발한다.

선정된 기업은 약 6개월 동안 최대 3천만 원의 사업과 자금을 받게 된다. 이 외에도 서비스 고도화, 홍보 마케팅, 재단 및 유관기관 기업 연계 프로그램에 우선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오는 5일 오후 2시에 진행되는 사업 설명회에 참석하거나, 재단 관광콘텐츠팀(063-230-4212)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 옛 전북의 구심점

###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기관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권익자였다.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반하강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김영 터의 중층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전주매일 캠페인

관공각

내아